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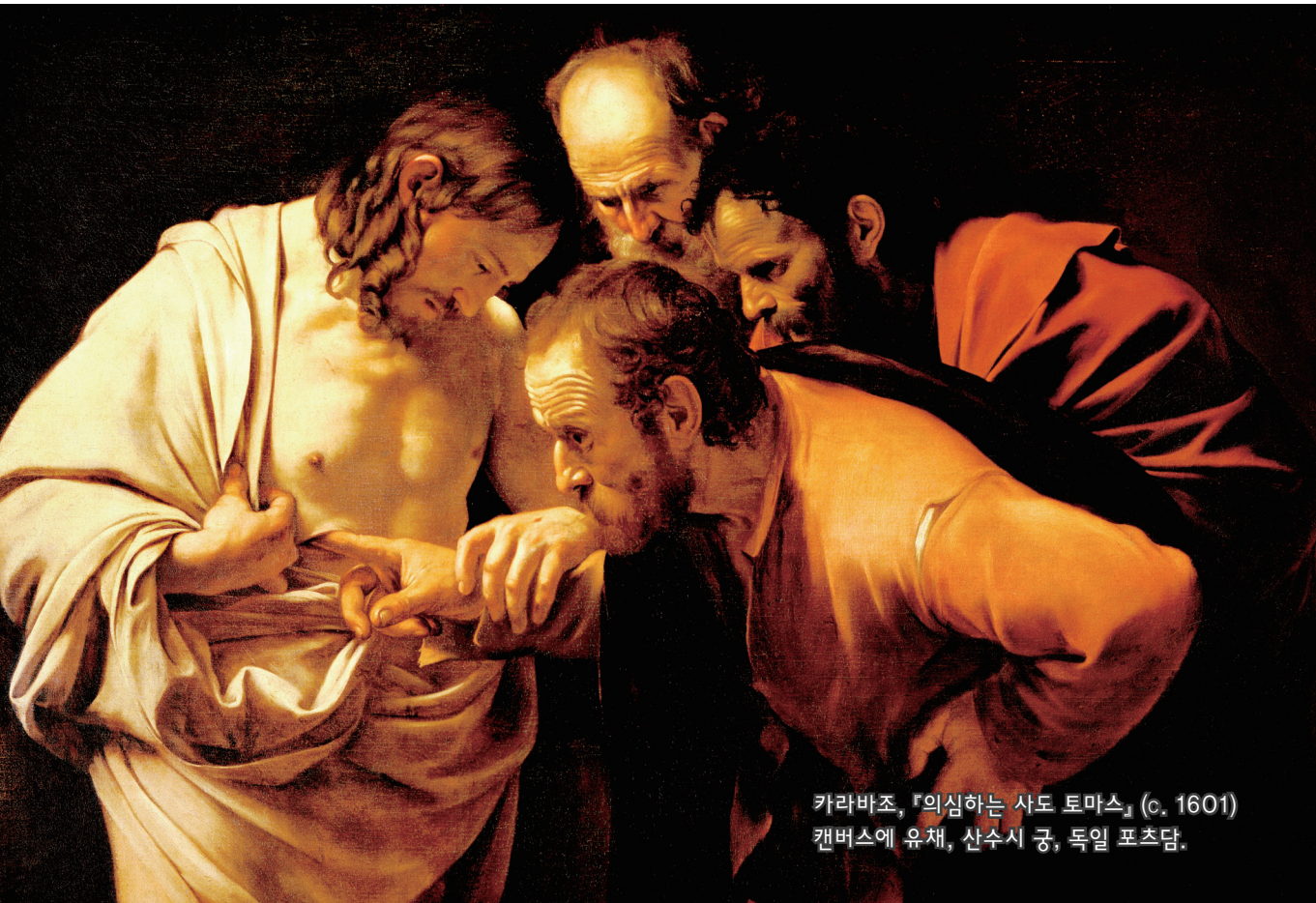
# 대구주보

부활 제2주일 (하느님의 자비 주일)

2015.4.12.(나해) 제1939호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는 교회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_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 (053)250-3048~9 \_ <http://www.daegujobo.or.kr>



카라바조, 『의심하는 사도 토마스』 (c. 1601)  
캔버스에 유채, 산수시 궁, 독일 포츠담.

## † 오늘의 전례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요한 20,19-31 참조)

우리가 2000년 전에 성지에서 태어났더라면 더 굳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 시대 사람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즉시 알아뵈지 못했습니다. 신앙은 자기 눈으로 직접 본다고 해서 생기지 않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복된 이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제1독서** 사도 4,32-35

**제2독서** 1요한 5,1-6

**복 음** 요한 20,19-31

**입 당 송** 갓난아이처럼 영적이고 순수한 젖을 갈망하여라.

너희는 그 젖으로 자라나 구원을 얻으리라. 알렐루야.

**화 답 송**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영성체송** 네 손을 넣어 못 자국을 확인해 보아라.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알렐루야.



송창현 미카엘 신부 | 대구가톨릭대학교

##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오늘 복음의 주제는 신앙과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결코 믿지 못하겠다는 토마스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마침내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신앙과 불신앙의 주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은 오늘날의 불신앙은 매우 다양한 모습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첫째, 무관심입니다. 오늘날의 불신앙은 “나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라는 명백히 부정적인 의사표명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한 싸늘한 무관심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무관심은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그리스도교적 가치와 실천이 아무런 매력을 가지지 못하고 그 어떤 관심도 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앙 없이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둘째, 세속주의입니다. 오늘날의 불신앙은 세속주의의 모습을 가집니다. 예수님의 정신과 복음적 가치가 그 중심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교 신앙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상의 정신과 가치 그리고 행동방식이 중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말로는 신앙과 교회를 내세우면서도 철저히 세속적인 행태들을 우리는 봅니다. 이것은 물질주의, 성과주의, 교회 안의 출세주의, 지역주의, 연고주의, 집단 이기주의, 종교적 정치꾼들의 권력 다툼, 정치적 집단행동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셋째, 근본주의입니다. 오늘날의 불신앙은 근본주의의 모습을 가집니다. 근본주의자들은 겉보기에는 아주 철두철미한 신앙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과거의 표현 방식과 예절에 갇혀있는 탓에 그리스도교 신앙이 가지는 풍요로운 생명력을 제한하려 합니다. 근본주의자들은 관습적인 신조와 실천을 절대시함으로써 그리스도교 신앙이 가지는 사회적 책임에 무관심하고, 신앙을 위한 지성의 역할을 무시하는 반지성주의의 형태를 띠니다. 오늘날의 신앙인은 현대 사회의 세속주의와 상대주의의 불안에서 회피하려고 쉽게 과거에로 회귀하려는 근본주의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근본주의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치를 흐려놓고 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은 여전히 신앙과 불신앙의 주제와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의 불신앙이 여러 다양한 모습을 가지는 현실에서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의미를 다시금 묻게 됩니다. 이 질문에서 우리 자신들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나는 과연 그리스도 신앙인인가? 나는 어떤 신앙인인가? 신앙은 나의 삶에서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를 진지하게 물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의 불신앙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도 살펴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을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으로 모시는 기쁘고 행복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

## 믿음의 길

## 사랑 이야기

신중혁 마태오 | 동천본당

세상은 사랑이라는 말이 넘쳐난다. 흔한 것이 대중가요다. 그분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다. 세상을 위해 당신을 온전히 내 주시는 사랑, 그분의 사랑을 따라가면 마침내 원수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내리사랑이란 말이 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 사랑하기는 예사다.’란 뜻을 담고 있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거의 희생적이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 부모님이나 스승님께 “사랑합니다.”하고 말한다. 전통 예법으로는 윗사람한테는 “존경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 오늘은 생동맛게 사람 사이의 사랑을 포함해서 사물 또는 자연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물건을 아끼는 것도 사랑이라고 한다. 애물(愛物)이란 말은 ‘사랑하여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란 뜻으로 쓰인다. 그러면서 자동차는 애물에 포함시키지 않고 따로 애차(愛車)라고 하여 ‘자기의 자동차를 사랑하고 아낌’, 혹은 ‘그 차’라고 서술하고 있다. 편리함과 목돈을 생각했음인지 항목을 달리하고 있다. 애착이란 말도 사랑을 들먹이긴 마찬가지다. ‘사랑하고 아껴서 단념할 수 없다.’라는 설명이다. 옛날에는 자전거를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자동차야 말할 것 있겠는가?

퇴직 기념으로 샀던 차를 막 중고차 상회에 넘기고 돌아서는 길이다. 아직 주인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알아서 처분한다고 한다. 나오면서 사람의 어깨쯤으로 짐작되는 뒷유리 상

단 부분을 다독거리며 ‘그 동안 너무 수고했다.’하고 속삭여 주었다. 몽당연필도 필통에 보이지 않으면 서운한 법인데..., 산책길 언덕에 나무뿌리가 바위를 친친 감고 있다. 여름장마에 골짜기가 패어서 속살이 드러났는데 바위는 나무뿌리에 감겨 있다. 지난날 완강히 버티던 바위가 화해 속에 평안해 보인다. 나무는 바람에 자주 속살거린다. 바람이 없어도 친구들을 불러 모아 노래를 들려준다. 생각 끝에 시집의 이름을 ‘나무의 변증’으로 정했다. 전에 직장 동료한테 진돗개를 분양받아 기른 적이 있다. 일 년쯤 지나니 중개로 보일 만큼 훌쩍 자랐다.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할 수 없이 시골 본가로 보냈다. 고향에 들렀을 때 진도부터 보려고 모퉁이를 돌아가니, 이견 반가워하는 정도를 넘어 눈을 바로 박은 채 제 정신이 아니다. 내 키보다 더 높이 뛰고 미는 바람에 넘어질 뻔했다. 재회의 걱정이 좀 가라앉고 목을 쓰다듬으니 옛날처럼 다소곳해졌다.

다시 사람 이야기를 하자. “너는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곰곰이 생각하니 사랑이란 울타리 속에 겨우 걸치레로 관심을 기울인 것 말고 뚜렷한 것이 없는 것 같다. 이웃돕기 전화한 통화 넣는 것, 지하철 계단에 구부리고 앉은 사람을 지나치기 민망해서 동전 한 닢을 지니고 다니는 것, 부스르기 후원금 몇 군데 보내는 것이 고작이다. 참, 한 가지 조금 신통한 것이 있다. 그러나 다른 손이 모르도록 하자. **광물**



선교지에서 온 편지

## 볼리비아에 뜬 쌍무지개



볼리비아에서 (최용석 신부)

대주교님, 저는 지난 2월 11일, 세계 병자의 날이자 교구 제1주보 축일에 선교지 볼리비아로 출국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항까지 나와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혼자 떠나는 것이 아니라서 다행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오창영 바오로 신부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고 모든 분들에게 잘 살겠다는 인사를 한 후 비행기를 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상파울루까지도 25시간이나 걸리는 비행 스케줄에 조금 불편했지만 미국 비자, 브라질 비자, 볼리비아 비자, 비행기 스케줄 확인 및 예약에 많은 도움을 주신 가톨릭여행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상파울루에서는 브라질 한인교회에서 사목하시는 대전교구 신부님들의 배려 덕분에 하루를 잘 보낼 수 있었고 볼리비아 행 비행기 탑승수속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기쁘게 환대해주신 브라질 한인교회 신부님들과 수녀님들께도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상파울루 공항에서 브라질 한인 교회 신부님을 만날 때 제가 가방을 공항 주차장에 두고 오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애를 쓰셨습니다.

하루를 지낸 다음에야 가방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주님, 안토니오 성인께서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데 도움을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선교할 본당의 주보성인도 안토니오이고 본당 이름도 안토니오 성당이니 안토니오 성인의 전구를 들으신다면 굿어들어주십시오. 제 가방 보호끈은 무지개 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아에게 약속하실 때처럼 제 가방에 묶여있는 무지개끈을 약속의 징표로 삼아 주십시오.” 한참 뒤에 브라질 한인교회 신부님께서 분실물 센터에서 제 가방을 찾아오셨습니다. 가방에는 무지개색 보호끈이 묶여져 있었고 다행히 분실물도 없었습니다. 신부님과 고생하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우여곡절 끝에 산타 크루즈 북쪽 공동체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휴식을 취한 후 석상희 신부님과 함께 제가 머물 San Antonio de Lomerio 성당으로 출발했습니다. 산타크루즈에서 저희 본당까지는 5시간 30분이나 걸립니다. 3시간은 그래도 포장도로이지만 나머지 2시간 30분은 비포장도로를 달려야 합니다. 본당으로 열심히 가는 길에 비가 내렸고 이어 쌍무지개가 떴습니다. 먼 나라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징표를 본 것 같아 너무 좋았습니다.

대주교님,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주신 대주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서품식 강론에서 “선교는 순교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새기고 대주교님과 교구 신부님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제로 살겠습니다. 

2015년 2월 22일 사순 제1주일  
최용석 스테파노 올림

이 사람을 아시나요? - 이름난 가톨릭 신자들

## 위대한 항해



사진출처/국제시장출품메이지

얼마 전 1,300만 명의 관객을 돌파하며 대한민국을 감동의 눈물바다로 만든 영화 ‘국제시장’의 첫 장면에 흥남부두 철수 작전이 등장합니다. 1950년 12월 23일 흥남부두에는 10만 명이 넘는 피난민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 철수 배인 메리디스 빅토리아 호가 정박 해 있었습니다. 정원 60명에 승조원을 제외하고 남은 자리는 고작 13명뿐. 부두에 떼를 지어 있는 피난민들의 처참한 광경을 목격한 이 배의 레너드 라루 선장은 배에 실려 있던 무기를 모두 버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태우라고 명령합니다. 16시간의 긴 탑승 끝에 정원의 230배나 되는 무려 14,000명을 태운 메리디스 빅토리아 호는 마침내 3일간의 목숨을 건 항해를 시작해 단 한명의 희생자도 없이 12월 25일 거제도 장승포항에 도착했습니다.

인류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구한 기적의 배로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된 메리디스 빅토리아 호의 라루 선장은 그 후 4년 뒤 베네딕토 수도회에 입회하여 마리너스 수사로서 미국의 뉴튼 성 바오로 수도원에서 평생을 수도생활에 정진하다가 2001년 10월 14일 87세의 일기로 선종했습니다. 40여 년간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동료 수사들에게 내색조차 하지 않아 그런 기적과도 같은 선행을 행한 줄도 모를 정도로 겸손했다는 마리너스 수사는 “어떻게 그렇게 작은 배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태울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사람도 잃지 않고 그 끝없는 위험들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그해 크리스마스에 향량하고 차가운 한국의 바다 위에 하느님의 손길이 우리 배의 키를 잡고 계셨다는 명확하고 틀림없는 메시지가 내게 와 있었다.”라고 회고했습니다. **가톨릭**



### 금주의 성인

|        |                                                                                                                                                             |
|--------|-------------------------------------------------------------------------------------------------------------------------------------------------------------|
| 4월 12일 | 성 사바(순교자, 372년), 성 알페리오(수도원장, 930~1050년)<br>성 율리오 1세(교황, 352년), 성 제노(주교, 순교자, 베로나, 371년)                                                                    |
| 4월 13일 | 성 아가토니카(순교자, 250년경), 성 우르소(주교, 라벤나, 396년)<br>성 헤르메네질도(왕자, 순교자, 585년), 성 카르포(주교, 순교자, 고르두스, 250년경)                                                           |
| 4월 14일 | 성녀 돔니나(동정순교자, 테르니), 성 란비노(수도원장, 1120년)<br>성녀 리드비나(동정녀, 쉬담, 1380~1433년), 성 베네젯트(평신도, 아비뇽, 1184년)                                                             |
| 4월 15일 | 성 다미아노(신부, 설립자, 몰로카이, 1840~1899년), 성 루아다노(수도원장, 로트라, 584년경)<br>성 마로(순교자, 99년), 성녀 바실리사(사도들의 제자, 순교자, 65년경)                                                  |
| 4월 16일 | 성 드로고(은수자, 세부르, 1105~1186년), 성녀 베르나베타(수녀, 루르드, 1844~1879년)<br>성녀 엔크라티스(동정순교자, 사라고사, 304년), 성 투리비오(주교, 아스투리아스, 450년경)<br>성 베네딕토 요셉 라브르(평신도, 증거자, 1748~1783년) |
| 4월 17일 | 성 돈난(수도승, 순교자, 617년경), 성 아니체토(교황, 순교자, 166년경)<br>성 에벨하르도(수도원장, 마르탈, 1178년), 성 스테파노 하르딩(수도원장, 1134년)<br>성 로베르토(설립자, 수도원장, 세즈디외, 1067년)                       |
| 4월 18일 | 성 갈디노(대주교, 추기경, 밀라노, 1100~1176년), 성 라세리안(수도승, 주교, 라이글린, 639년)<br>성녀 아지아(과부, 몽스, 714년), 성 아폴로니오(원로원 의원, 순교자, 호교론자, 로마, 185년경)<br>성녀 안티아(과부, 순교자, 117~138년)   |



## ■ 예수 부활 전야 미사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4월 4일(토) 오후 8시 30분 계산 주교좌성당에서 예수 부활 전야미사를 봉헌하셨다.

## ■ 예수 부활 대축일 미사



대주교님께서는 4월 5일(일) 오전 11시 문덕성당에서 예수 부활 대축일 미사를 봉헌하셨다.



##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성경통독

<15주간, 2015. 4. 12~18.>

| 주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2역대 6-9장 | 10-16장 | 17-20장 | 21-25장 | 26-28장 | 29-31장 | 32-34장 |
| 확인       | 확인     | 확인     | 확인     | 확인     | 확인     | 확인     |

### • 신명기계 역사서(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상·하, 열왕기 상·하)

이스라엘 민족은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멸망과 유배라는 커다란 시련 앞에서 “왜?”라고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신명기계 역사서는 자연히 과거를 분석하고 비판함으로써 현재의 불행과 그 원인을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와 과실을 고발하는 ‘과거 지향적 고발 문체’로 전개되어있다.

### • 역대기계 역사서(역대기 상·하, 에즈라기, 느헤미야기)

유배에서 풀려나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고국으로 귀환한 후 이스라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될 것임을 피력하려는 신학적 노력을 절실히 보여준다. 융성했던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내일의 유다 공동체를 세우려는 꿈을 제시하는 만큼 전체적으로 ‘미래 지향적 분위기’를 자아낸다.

문의\_성서사도직 담당 박상용(사도요한) 신부, 250-3070

## 내가 부끄러워

박성규 엘리시오





## 미사안내

|                  |                      |                  |                              |
|------------------|----------------------|------------------|------------------------------|
| 1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 4월 13일(월) 11:00 계산성당 | 꾸르실리스따 월례미사      | 4월 13일(월) 19:30<br>꾸르실료교육관성당 |
| 3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 4월 13일(월) 11:00 월성성당 | 김천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 4월 16일(목) 10:00 평화성당         |
| 경주지역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 4월 13일(월) 11:00 황성성당 | 3대리구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 4월 18일(토) 10:00 월성성당         |
| 구미지역 군 종후원회 월례미사 | 4월 13일(월) 11:00 신평성당 | 미바회 월례미사         | 4월 18일(토) 11:00 성모당          |
| 포항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 4월 13일(월) 11:00 죽도성당 | 프란치스칸 후원회 미사     | 4월 18일(토) 15:00<br>프란치스칸눔 경당 |
| 2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 4월 13일(월) 11:30 범어성당 | -                | -                            |

### 성소 | 피정

#### 천주성요한의료봉사수도회 성소 모임

일시: 4.18(토) 14:00~17:00

장소: 서울 개화동 수도원

대상: 의료봉사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  
문의: (010)3800-1579

#### 한국성모의자애수녀회 성소 모임

일시: 4.19(매월 셋째 주일) 14:00

장소: 칠곡 수련원

문의: (010)3113-6219

####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성소 모임

일시: 4.19(일) 14:00, 부산 수녀원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미혼 여성  
문의: (010)9319-1690

#### 부부를위한 330차 ME주말, 16차MR주말 더 행복한 부부를 위한 ME주말

330차: 4.24(금)~26(일), 한티

ME 체험부부를 위한 16차 MR피정

기간: 5.9(토)~10(일), 한티피정의집

문의: 983-0521

#### 성심교육관 2박 3일 무료 피정

기간: 4.17(금) 23:00~19(일) 15:00

장소: 성심교육관

차량출발: 시민회관 16:00 출발

주최: 파티마의성모프란치스코수녀회

문의: 이카타리나, (010)4515-1114

#### 산내 치유 피정/성서통독(선착순 10명)

기간: 4.21(화)~22(수), 효령 하늘집

내용: 정기모 신부와 함께 하는

주고 받은 상처의 치유 시간

문의: 동천성당, 326-5004

### 교육 | 모집

#### 예수성심전교수녀회(마음의길) 기도모임

일시: 4.19(일) 14:00, 상동성당

대상: 35세 이하 미혼 여성

문의: (010)9330-3104

#### 수원 성 빈센트 드볼 자비의 수녀회 빈마음 모임

일시: 4.19(일) 14:00, 수원 본원

문의: (010)8833-8107

#### 렉시오 디비나 (앗술)

일시: 매주(화) 19:30~21:00

장소: 남대영기념관 경당

대상: 남녀 젊은이 (앞산)

신청: 예수성심시녀회, (010)2649-2045

#### 한중친선협회 회원 모집

한중친선협회에서는 중국어 신약성경 읽기반과 중국어 공부에 관심있는 교우를 연중 모집합니다

장소: 남산동 대신학원 강의동 103호

문의: 진시형 요셉, (010)4931-0996

#### 인천교구 마리스탈라 실버타운 입주자 모집

국제성모병원, 성모요양원과

함께있는 264세대 실버타운

성당, 헬스장, 사우나, 물리치료실 등

각종 편의시설과 천마산 등산로 조성

위치: 인천 서구, 문의: (032)280-1500

#### 제주도 관광 안내

가족, 효도, 단체 관광 및 성지안내

차량, 호텔, 팬션예약가능

문의: 제주운전기사도회, (010)4566-6476

**광천 이조맛김**  
시애틀 창립지역 영웅 김 —

김 · 건어물 · 찢갈뽕 판매  
성전간접기금 마련 및 바자회  
성모와 · 자모회 등 각종 단체 기념모임

전 영 진(바오로) 010-4192-5655  
이 경 숙(모니카) 010-4123-5353  
**053-255-3836**

**애플비뇨기과**  
www.appleuro.com

비뇨기과 원장 강 일(베드로)  
전 문 의 이영국(안드레아)

전립선 클리닉(레이저수술,암검진)  
오로결석클리닉(24시간 채석)

범어네거리 애플타워 5층 TEL. 755-0888

**이 원 의 료 기**

협압계 · 혈당계 · 휠체어 · 산소치료기  
뜸 · 부항기 · 주열기 · 찜질기  
체온계 · 욕창매트 · 환자용품 · 안마기  
실버카 · 보호대 · 글루코사민 · 오메가3

변상범(도미니코), 김인숙(아니타)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 앞  
☎(053)256-2512(대표),2513

**성누가종합내과외과**  
(구.성누가의원) 이진진료

진료과목: 소아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신경과  
위 · 대장내시경, 건강검진센터(공단검진,5대암)  
원장 이관식(투카) · 원장 서영익(미카엘)

경북대 치과병원과 삼덕네거리 사이  
지하철 2호선 경대병원역 1번출구앞 2층(사대부고 맞은편)  
☎ 053)255-3134

건물청소(임주, I · T청소(소독), 연강관리 등)  
시설경비, 방역소독, 저수조청소(소독)  
소방시설종합관리, 주거환경개선(집수리)

**(주)행복한세상**  
대표전화 053)524-1231  
http://www.hbdaegu.co.kr

행복안지역아동센터  
(취약계층아동 방과후 학교운영)  
후원전화 070-8911-6033

작고 행복한 결혼식  
하우스 웨딩 전문

**메종 보네르**  
서 현 희 (헬레나)

☎ 053)421-3447  
http://www.maison-bonheur.co.kr

31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나노기술 · 디지털보청기 전문  
053)257-8500 / 253-7476  
방 프란치스코  
중앙네거리~만경관 사이 지하도 입구

발아플덴  
**발아정형외과**  
AL-A

무지외반증 수술 전문  
지간신경통 | 족저근막염 | 평발치료 | 발목내시경

원장 윤현국(비오) 721-8879  
수성구 황금네거리에서 롯데캐슬 방향 500m

## 행사 | 모임

###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미사

일시: 4.15(수) 19:00, 성모당  
주례: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  
9일 기도일정: 4.7(화)~14(화) 19:30,  
4.15(수) 19:00  
문의: 정평위, (010)9544-1838

### 2015년 신학교 성소주일 행사

성소주일을 맞아 신학교를 개방합니다  
일시: 4.26(일) 10:00~16:00  
장소: 남산동 유스티노 캠퍼스 및  
교구청 일대  
내용: 미사(11:00, 14:00) 및  
다양한 상설 프로그램  
협조: 버스, 승합차만 주차장 이용가능,  
대중교통 이용 바랍니다  
문의: justinus1914@gmail.com

### 제1회 대구교님과 함께하는 젊은이의 날

일시: 5.2(토) 15:00~21:00  
장소: 교구청 교육원 다동 강당, 성모당  
주제: 처음과 같이 이제와 영원히  
대상: 교구 내 청년, 수도자, 신학생  
신청: 청년국 다음카페(dg-youth)

### 4월 가나 강좌

일시: 4.19(일) 10:00~17:30(9:30접수)  
장소: 가톨릭대학병원 내 의대 마리아관  
참가비: 2만원, 당일접수(무료주차)

문의: 641-5678 / (010)8853-7458  
5월달은 둘째주(10일)주일에 실시함  
**복자성당 사랑 나눔 큰 잔치**  
기간: 5.30(토) 11:00~31(일)  
내용: 본당설립 45주년기념, 50주년  
(2020년)준비 및 지역 복음화와  
이웃과 함께 하는 바자회  
품목: 생필품, 예술품, 먹거리, 주류 등

## 교육 | 모집

### 지성인을 위한 토요신앙특강

일시: 4.18(토) 10:00, 남산동신학대학  
주제: 성경인물들의 자아인식  
강사: 임순희(다리아) 수녀  
문의: 평신도신학교육원,  
660-5105~6

### 시편성가, 발성법 연수

일시: 4.12(일) 15:00 / 1만 원  
강사: 김정선 수녀, 박재연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 영성심리집단치료 수강생 모집(12회기)

일시: 목요일 20:00~22:00 / 12명  
장소: 푸른평화예술치료상담연구소  
대상: 치료사 및 상담사,  
영적성숙을 원하시는 분(선착순)  
문의: 794-6022 / (010)3513-2225

## 채용 | 안내

### 상인성당 사무장 채용

서류: 본당신부님 추천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마감: 4.26(일)  
문의: 상인성당, 639-1900

### 성 김대건성당 사무원 채용

자격: 고졸이상(여성환영), PC 가능자  
서류: 자필이력서, 교적사본, 자기소개서  
마감: 4.26(일)  
문의: 성 김대건성당, 742-2504

###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사제관 주방 직원 채용

자격: 운전가능, 숙식가능한 여성  
서류: 자필이력서, 마감: 4.24(금)  
문의: (010)3025-2046

### 가톨릭푸름터, 미혼모시설 간호사 채용

자격: 간호사 / 간호조무사(산부인과  
근무경력자 / 만35세~45세)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사본  
마감: 4.24(금), 문의: 764-8537  
접수: gglade@hanmail.net

### (주)매일상조 영업사원 채용

매일신문사에서 직접 운영하여  
믿을 수 있는 매일상조에서  
함께 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427-4400(면접 후 채용)

### 교구법원 공시(250-9550)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김철홍, 황승렬(베드로), 이명숙(글라라)

**더 편한 내과**  
부설 : 건강검진센터  
대구광역시 남구 월배로 470  
군청빌딩 3층 (구 달성군청)  
원장 윤석진 (야고보) ☎ 053)651-7585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진실한 신자와의 만남의 장  
**성가정 결혼**  
053)474-0025, 010-3818-0818  
가톨릭 문화관 2층  
남대구 우체국 옆, 교대역 3번 출구  
권중문(파비올라)

since 1999  
**성모아이한의원**  
감기출입/성장(식육부진·수면장애)/아토피/아노  
소아간질(경기)/틱·ADHD/발달장애  
한 의 학 박 사  
동국대학의학과 외래교수 **김 성 철(비오)**  
대표번호 1588-3386  
대구 범어역 3번 출구 애플타워 8F  
서울 강남역 5번 출구 강남메디타워 4F

**대구그리다스튜디오**  
설레임으로 다가와  
추억을 그리다!  
가족촬영 | 우정촬영 | 리마인드촬영 | 웨딩전문촬영  
드레스대여 | 텍스대여 | 메이크업 · 헤어디자인  
김 대 현 (프란치스코)  
☎ 053)424-7777 | 010-2112-8236

**유앤아이 결혼정보**  
053)795-2211 · 010-6572-2233  
신매동 새마을금고 옆  
신매역 3번 출구 (천주성심병원 방향)  
김 경 일 (야네스)

**대구연세안과**  
· 아이라식 · 안내렌즈  
· 노안수술 · 백내장수술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 2번 출구  
의 학 박 사  
현.연세대의학교수 원장 **박중원(소시모)**  
☎ 053)626-8881~5

**미소인치과**  
원장 이 종 현 (프란치스코)  
송 선 희 (안나)  
지하철 범어역 4번 출구  
전화상담 053)752-7575 **최.복**  
www.misoindental.com **하강진료**